

2019년 10월 2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S&P500, 무역협상 기대로 사상 최고치 경신 트럼프 “APEC 회의에서 1 단계 무역합의 서명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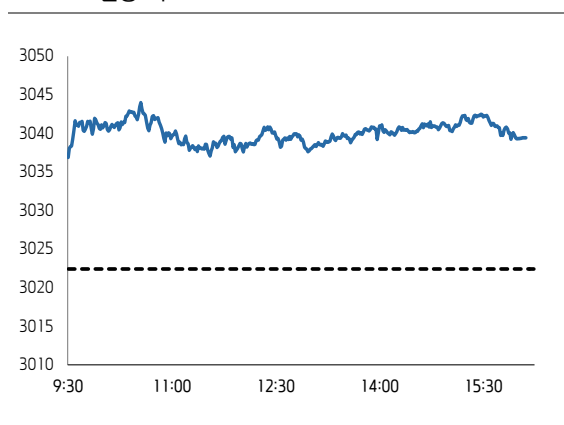
미 증시 상승 요인: 무역협상 기대, 브렉시트 시기 연장 등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 및 브렉시트 시기 연기 소식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상승. 특히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안 서명을 언급하고, EU 는 브렉시트 시기 연장을 발표한 점이 투자심리 개선효과. 한편,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진 MS(+2.46%)와 실적 발표를 앞둔 알파벳(+1.95%), 제약회사들이 강세를 보이며 기술주 및 헬스케어 업종이 상승 주도한 점이 특징(다우 +0.49%, 나스닥 +1.01%, S&P500 +0.56%, 러셀 2000 +0.85%)

트럼프가 미-중 무역협상 스몰딜 합의 이후 관련 내용 구체화가 예정보다 빠르다고 언급. 더불어 APEC 회의에서 합의에 타결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높아지며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에 농산물 수입 증가뿐만 아니라 금융개방, 위안화 절상, 기술 이전 등 일부가 더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시장 기대가 높음. 특히 트럼프가 이날 “1 단계 합의라고 말하지만, 전체 협상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주장해 이러한 기대를 높임.

한편, EU 는 영국이 보내온 브렉시트 일정 연장을 내년 1 월 31 일로 연기하는 데에 합의. 더불어, 최근 영국과의 합의안에 대해 영국 의회가 비준 한다면 브렉시트 일정이 빨라질 수 있다고 발표. 이 결과만 보면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높임. 한편, 존슨 총리가 주장한 12 월 12 일 조기 총선은 의회가 부결해 브렉시트 관련 고착화는 이어감. 관련 소식은 금융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았는데 조기 총선이 진행 되려면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되기에 가능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 이러한 증시 주변 여건이 완만하게 개선되자 S&P500 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 업종별로 보면 기술주,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및 금융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유틸리티, 부동산, 필수 소비재 등 방어주가 부진하는 등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93.60	+0.27	홍콩恒生	26,891.26	+0.84
KOSDAQ	652.42	+0.01	영국	7,331.28	+0.09
DOW	27,090.72	+0.49	독일	12,941.71	+0.37
NASDAQ	8,325.99	+1.01	프랑스	5,730.57	+0.15
S&P 500	3,039.42	+0.56	스페인	9,433.00	+0.03
상하이종합	2,980.05	+0.85	그리스	872.30	-0.19
일본	22,867.27	+0.30	이탈리아	22,695.64	+0.3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알파벳, 시간 외로 1% 하락

MS(+2.46%)는 지난 주 아마존(+0.89%)과의 100억 달러 규모의 국방부 클라우드 계약 경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퀄컴(+3.59%)은 새로운 소식은 없었으나, 중국과의 무역분쟁 완화 기대가 이어지며 상승세를 확대했다. 반도체 장비 업종인 램리서치(+4.15%)는 지난 주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다. AMAT(+2.21%), KAL-텐코(+2.85%)도 강세를 보였다.

AT&T(+4.28%)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2020년 주당 순이익도 33% 이상 늘릴 계획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 약품및 소매업체인 월그린 부츠(+0.69%)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반도체 업체인 온 세미컨덕터(+10.58%)는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급등했다. 공급망 재고가 정상화되는 등 업황이 완만한 개선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티파니(+31.63%)는 모엠헤네시-루이비통이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급등 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1.95%)은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1%넘게 하락하고 있다. 비온드미트(+4.56%)는 양호한 실적 발표 불구 경쟁 심화 우려가 부각되며 시간 외로 7% 넘게 하락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69%	대형 가치주 ETF(IVE)	+0.44%
에너지섹터 ETF(OIH)	-0.68%	중형 가치주 ETF(IWS)	+0.22%
소매업체 ETF(XRT)	+0.83%	소형 가치주 ETF(IWN)	+0.68%
금융섹터 ETF(XLF)	+0.52%	대형 성장주 ETF(VUG)	+0.70%
기술섹터 ETF(XLK)	+1.27%	중형 성장주 ETF(IWP)	+0.6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83%	소형 성장주 ETF(IWO)	+0.99%
인터넷업체 ETF(FDN)	+0.88%	배당주 ETF(DVY)	+0.10%
리츠업체 ETF(XLRE)	-1.06%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2%
주택건설업체 ETF(XHB)	-0.7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4%
바이오섹터 ETF(IBB)	+1.34%	미국 국채 ETF(IEF)	-0.38%
헬스케어 ETF(XLV)	+1.03%	하이일드 ETF(JNK)	+0.07%
곡물 ETF(DBA)	+0.57%	물가연동채 ETF(TIP)	-0.48%
반도체 ETF(SMH)	+1.52%	Long/short ETF(BTAL)	-1.2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36.14	-0.62%	+1.79%	-0.23%
소재	366.38	+0.29%	+1.96%	+0.47%
산업재	664.12	+0.26%	+1.80%	+1.41%
경기소비재	954.33	+0.38%	-0.93%	+0.74%
필수소비재	625.95	-0.18%	+0.07%	-0.54%
헬스케어	1,076.07	+1.04%	+1.44%	+3.13%
금융	477.97	+0.50%	+1.03%	+2.67%
IT	1,473.62	+1.26%	+2.69%	+4.26%
커뮤니케이션	172.68	+1.17%	+0.87%	+3.24%
유틸리티	321.23	-1.31%	-1.20%	-2.21%
부동산	241.66	-1.08%	-2.85%	-0.8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상승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6% MSCI 신흥 지수 ETF 는 0.59%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516 계약 순매수 하며 1.20pt 상승한 279.6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7.9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트럼프가 APEC 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 1 단계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가 부각되며 기술주 및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이었다. 이미 지난 소식들에 의한 상승이었으나,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특히 온 세미컨덕터(+10.58%)가 일회성 비용으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공급망 재고가 개선 되는 등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를 하는 등 일부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 발표도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FOMC 를 앞두고 씨티그룹 등 일부 투자은행들이 금리인하를 하겠지만,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매파적인 FOMC 가능성을 높인 점은 부담이다. 연준이 이번 FOMC 에서 추가 금리 인하 중단을 시사하는 문구를 넣지 않는다면 여전히 금리인하 기대를 높여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일 여지가 높다. 그러나 중단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알파벳이 이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하 이후 시간 외로 1%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제한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표 둔화

9 월 시카고연은 국가활동 지수는 전월(0.15) 보다 둔화된 -0.45 로 발표되었다. 3 개월 평균도 전월(-0.06) 보다 부진한 -0.24 를 기록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생산및 소득(0.19→-0.37)이 부진을 주도했고, 고용(-0.03→-0.02), 판매및 재고(-0.01→-0.02) 등도 여전히 음의 영역에서 등락했다.

10 월 달라스 연은 지수는 전월(1.5)이나 예상(1.2)를 하회한 -5.1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생산지수(13.9→4.5), 신규수주(7.1→-4.2), 고용지수(18.8→11.0) 등 모두 부진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상승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 출발 했다. 그러나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을 우려하며 하락했다. 특히 9 월 중국 공업이익이 4 년내 최대폭인 전년 대비 5.3% 감소하는 등 중국의 수요 부진 우려가 높아진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에너지 차관이 추가 감산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에는 약세를 보였으나 엔화에는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EU 가 브렉시트 일정을 내년 1 월 31 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 했다고 발표되자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되며 유로화와 더불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와 노딜 브렉시트 우려 완화가 이어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부진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APEC 회의에서 1 단계 합의문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더불어 브렉시트 시기 연장 소식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런 가운데 씨티그룹 등 일부 투자은행들이 이번 주 있을 FOMC 에서 금리인하 후 추가 인하를 종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매파적인 FOMC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완화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불구 혼조 마감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74%, 철근도 0.42%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5.81	-1.50	+4.30	Dollar Index	97.737	-0.10	+0.42
브렌트유	61.57	-0.73	+4.43	EUR/USD	1.11	+0.18	-0.45
금	1,495.80	-0.63	+0.52	USD/JPY	108.97	+0.28	+0.32
은	17,876	-0.28	+1.56	GBP/USD	1.2857	+0.23	-0.79
알루미늄	1,737.00	+0.52	+0.46	USD/CHF	0.9947	0.00	+0.89
전기동	5,908.00	-0.29	+1.37	AUD/USD	0.6837	+0.21	-0.45
아연	2,543.50	+1.33	+2.85	USD/CAD	1.3057	-0.01	-0.24
옥수수	384.00	-0.71	-0.84	USD/BRL	3.9937	-0.29	-3.28
밀	511.75	-1.16	-2.24	USD/CNH	7.0645	+0.19	-0.08
대두	935.50	+0.11	-1.19	USD/KRW	1170.70	-0.20	-0.11
커피	100.50	+1.06	+4.31	USD/KRW NDF1M	1167.98	-0.25	-0.31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842	+4.77	+4.27	스페인	0.303	+3.30	+2.10
한국	1.777	+9.20	+10.80	포르투갈	0.247	+2.90	+1.30
일본	-0.122	+1.40	+0.30	그리스	1.209	+1.00	-10.50
독일	-0.332	+3.00	+1.20	이탈리아	1.002	+5.20	+2.00